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禪美學的 경향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이후 Rei Kawakubo, Issey Miyake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정 후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Zen Aesthetics in the Japanese Contemporary Costume — Focused on the designs of Rei Kawakubo and Issey Miyake from 1980's —

Jung-Hoo Lee · Sook-Hi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7. 7. 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zen aesthetic tendencies of Japanese contemporary costume, especially designs of Rei Kawakubo and Issey Miyake.

Zen is one of the Buddhism, which is originated in India, and is the religion and philosophy for salvation. There are many resemblances between Zen and postmodernism. Zen has influenced on the 'non-ornamental' culture in Japan, and attaches importance to poverty, moderation as the essentials of the zen aesthetics, as it were *WabiSabi* aesthetics is connected with the art of Tea.

In this paper, it was classified zen aesthetics with the beauty of non-dualism, the beauty of poverty, the beauty of purity, the beauty of emptiness and the beauty of deepness, and then applied aesthetic categories to the costume designs of the Rei Kawakubo and Issey Miyake.

I. 서 론

1980년대에 이르러 패션이 개성화,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해체적 사고와 미적 견해를 표현하는 디자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디자이너세제도 서구에서 탈 중심화하여 비서구권 디자이너들이 활약하게 되었다. 특히 80년대 초반 새롭게 부상되는 동양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으로 힘을 갖게 된 일본이 새로운 패션 선도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80년대 이후 신비에 싸여있던 일본 디자이너들이 선보인 도전적이고 실험성 강한 작품들은 새로운 미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 일본복식조형에 나타나는 반항과 저항정신을 서구의 정신사상적 입장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는 많았으나 일본 복식디자이너의 정신세계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행해진 연구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의 전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서구적 해체와 차별되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복식조형에 나타난 동양적 해체의 내재적 의미를 동양사상의 하나

인 禪미학과 연관지어 고찰하였다.

‘꾸밈’과 ‘반꾸밈’ 문화라는 일본문화의 두 조류중 꾸미지 않는 문화의 바탕을 이루면서 독특한 미의식을 창출하여온 禪은 지금까지도 일본인의 생활 속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문화를 직접 반영하는 복식에 이와 같은 선미학적 경향이 반영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본복식세계에 대한 보다 심원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연구방법은 1980년대 이후 일본 디자이너들 중 Rei Kawakubo와 Issey Miyake의 작품을 중심으로 행하였으며, 국내외 문헌과 잡지, 신문자료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연구결과를 입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禪의 개념과 역사

禪은 불교의 한 종파로서 인간과 우주의 근본실체를 파악하고 그러한 근본실체를 파악함으로써 生과 死를 초월하고 우주의 모든 원리를 체득하여 신통의 경지인 깨달음(開悟)에 이르는 무신론적 종교이자 철학이다. 禪은 먼저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에 전해졌고 달마를 시조로 하는 禪宗이 성립되었다. 인도의 불교와 중국의 老莊 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禪이 일본에 전해진 것은, 13세기 초 가마꾸라(鎌倉)시대였다. 에이세이(榮西)와 도겐(道元)이 일본에 禪을 가져온 후 禪은 일본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하였고 많은 문화를 창조하였다¹⁾.

禪이 서구의 사상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서양 철학의 경우 모순을 확고한 대립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에 반해 禪은, 모순된 상반을 진리로 인식하는 상대성을 숭배한다는 것과 서구의 진리탐구가 언어중심적이고 대상을 의식한 논리체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달리 비언어적 수행과 철저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 의식 즉, 마음 그 자체를 찾았다는 점이다²⁾.

스즈끼 다이세츠(鈴木大拙)가 말한 바와같이 “禪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자기 존재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기술이며,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이 향하는 길을 제시한다. 禪은 우리들 각자 속에 본래 자연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해방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본래의 마음 속에 있는 창조적이고 자비로운 모든 충동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내가 말하는 자유³⁾이다. 禪은 神조차도 불필요한 형식이며, 비역압

상태, 왜곡되지 않은 실재, 자발성을 파악하여 무구(無垢)로 복귀하는 것 즉, 일체의 외적인 형식을 버리고 본래의 적나라한 자기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일본문화에서의 禪미화

일본문화의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꾸밈’계 문화와 ‘반꾸밈’계 문화라는 대조적인 두 조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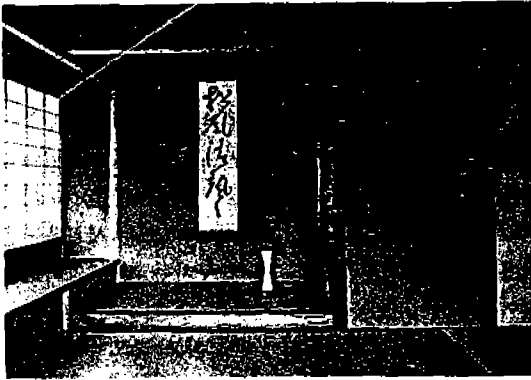
꾸밈은 살아있음 즉, 생명력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일본인의 ‘꾸밈’의 문화는 조몬인의 토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헤이안(平安)시대에 당나라미술의 풍요한 장식성이 유입되고 이것이 헤이안 귀족의 유희주의적 생활태도와 융합되면서 ‘꾸밈’의 문화가 촉진되었다. 이때에 등장한 ‘풍류’와 ‘본에 넘치는 사치스러움(過差)’은 저택이나 정원, 의복, 회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용구를 금은이나 다양한 색채로 공들여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러한 풍류의 전통은 중세로 계승되었고, 14세기가 되면 ‘허세’로 이어지게 되고 모모야마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상스럽게 과장하는 장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다시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사치스런 풍류’로 전해지면서 꾸밈의 문화는 가부키(歌舞伎)의 상과 같은 야하고 현란한 것으로 정착되고 근세 초기의 ‘장식의 황금시대’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⁴⁾. 이처럼 일본미술의 장식성 창출의 원동력이 된 ‘꾸밈’의 열정은 왕성한 번식력과 생명력에 대한 표현욕구와 귀족들의 신분상징에 대한 과시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에 ‘반꾸밈’의 문화는 바로 禪사상의 ‘空’과 통하는 것으로서 와비사비의 미학, 야쯔시(やつし: 의도적 빈곤)가 합쳐진 꾸미지 않는 문화이며, ‘꾸며대는 풍류’와 반대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경사스런 세계의 ‘과잉의 미학’을 ‘제거의 미학’으로 대체시킨 것이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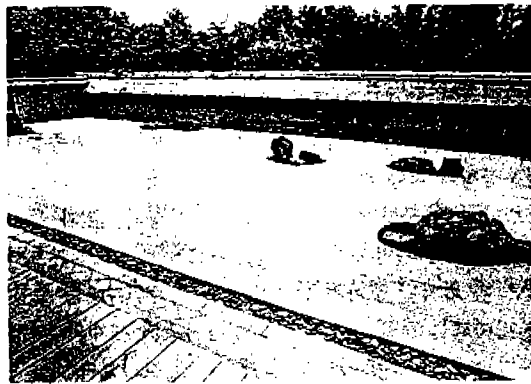
중세이후 禪이 일본에 정착된 후 등장한 미의식의 핵심은 적극적인 무상감과 빈곤의 미학으로서 지금까지 일본인의 생활방식을 지배하고 있다. 빈곤의 미학이란 일본만의 독자적인 ‘無’의 문화 즉, 와비사비의 미학이다. 와비(わび)는 중세이래 등장한 예술이념의 일종으로 초암(草庵)에 사는 은둔자의 빈곤함과 그로 인한 고층의 달관 및 세속을 초월한 풍아를 나타내고, 소박간소한 속에서 깊고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지고의미를 찾는 개념으로 禪과의 관계 특히 다도와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와비차(わび茶)라는 개념으로 발달되었다. 15,

6세기 禪불교 원리에 근거한 미학적 전통에 따라 등장한 다도(茶道)와 그에 따른 다의식 및 이에 영향받은 와비의 미는 서양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다실(茶室) 건축과 정원(庭園) 예술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초가에 지나지 않는 다실(그림 1)에서 미완성과 불완전, 여백의 미를 즐기는 茶의 이상은 16세기 이후 일본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쳐 오늘날까지 일반적인 일본 가옥



[그림 1] 초암다실의 내부



[그림 2] 료안지(龍安寺) 정원
「일본미술 이해의 걸잡이」 p. 82

의 내부는 창식이 극히 간소하다⁹⁾. 일본의 정원 역시 한적함의 풍류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비대칭의장의 하나인 료안지(龍安寺)의 정원은 커다란 다다미를 연상시키는 장방형 주위에 흰 모래를 깔고 평범한 돌 15개를 다섯무리로 나누어 배치한 것으로 '꾸미지 않는' 방식의 극치를 보여준다⁷⁾(그림 2).

사비(さび)는 한적함 속에 깊은 멋과 정신적인 풍요

로움, 아취를 지니고 있다는 미적이념으로 '고요', '평화', '평온' 등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의 'santa' 혹은 'santi'에서 유래하였다. 불교문학에서는 종종 '죽음'이나 '열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함축된 의미는 '가난', '단순함', '고독'이며 여기서 사비가 와비와 유사어가 되었다⁸⁾. 사비는 소재나 표현에 있어서 표면적인 한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의 마음이 저절로 작품 속에 하나의 색조로 물들고 나아가 외면적,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의 무상함과 삼라만상의 본질을 터득함을 통해 얻는 미의 경지이다.

한편 일본문화의 국제적인 소개에 앞장 선 19세기 미술평론가인 오가꾸라 덴신(岡倉天心)은 일본인의 미의식을 불완전성이라고 하였으며, Harold Koda 역시 전통적인 일본미학의 중요요소로서 불규칙(irregularity), 불완전(imperfection)과 비대칭(asymmetry)을 들고 있다⁹⁾. 히사미쯔 신이지(久松眞一)는 덴신의 설을 수정하여 '완전한 것의 자기 부정' 즉, 완전성에 대한 자제, 불투명, 수수, 소박함, 불균형이 일본문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禪と美術>에서 일본문화와 禪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려고 시도하였고 일본인의 미의식인 '불균형'을 禪의 본질이라 하였다¹⁰⁾. 그는 禪예술의 조건으로 불균제(不均齊), 고고(枯高), 자연(自然), 탈속(脫俗), 간소(簡素), 유현(幽玄), 정적(靜寂)을 들고 있다¹¹⁾. 이러한 禪예술의 7가지 성격은 완전한 자기 부정으로 절대무(絕對無)의 창조가 되며 본래무사(本來無事), 문명의 과잉을 억제하는 문명자체의 내부적인 비판과 새로운 인간으로의 복권을 추구하는 것이다. 중세이래 불균형, 불투명, 불완전의 미, 결여의 미, 폐허의 미의식은 지금도 일본인의 일반적인 미의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의식은 일본 디자이너들에게 정신적으로 무상과 빈곤의 미학을 계승하였고, 자연미와 절제를 통한 순수함을 추구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3. 禪과 포스트모더니즘

근대 서구는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과학적 사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한 과학적 사유체제는 자연 뿐 아니라 세계, 인간까지도 기계론적 법칙에 의해 지배하였으며 이러한 세계관은 Aristotle 이후 서구를

지배해 오던 목적론적 세계관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19세기 말 인식론에 바탕을 둔 이상 체일주의에 반기를 든 Nietzsche의 부정적인 회의론은 현대문명을 위기로 인식함과 동시에 기존의 절대적 사유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 온 서구의 형이상학적 근원에 대한 의문제기는, 목적론적 세계관의 붕괴가 특징인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서양사상은 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근원상실에 대한 불안을 수용하고, 동반자로 인식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동양사상 특히, 禪불교 속에는 이미 근원이 없는 세계로부터 출발했다는 데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표 1> 참고).

<표 1> 서양사상과 동양 禪사상의 비교

서 양		동 양
전통서구사상	포스트모더니즘	禪사상
이성	직관	직관
절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
이분법	이분법의 해체	이분법의 정지, 초월
억압적 구조	억압된 것의 복귀	비억압 상태
중심화	탈중심화	근원상실
확정성	불확정성	불확정성

동서문화를 연결하는 공로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Octavio Paz의 작품 속에는 인디언 문화와 인도 및 일본의 禪사상, 중국의 노장 사상 등 동양사상이 용해되어 있다. 그는 동양 사상이 서양에서 처럼 '모순의 법칙'이나 '존재'에 대한 강박관념이 없으며 서로 대립되는 극점을 큰 혼란없이 결합할 수 있는 현실피악의 방법으로 '부정확성'이 아니라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¹²⁾.

서양사상의 큰 지주인 기독교의 창세기에는 창조가 구분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구분은 갈라져 나옴에서 기인된다. 즉, 하늘은 땅과, 빛은 어둠과, 창조자는 피조물과 갈라지고 구분되는 것이다. 반면에 동양의 근원조차 없는 '비어있는 중심(empty center)'은 이분법적 대립이 제거된 곳으로서 '비어 있음'의 구체적인 예는 곧 영(zero)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힌두사상에서 시작된 영의 개념은 있음(有)의 반대인 없음(無) 혹은 부

정(否定)도 아니다. 영은 오히려 부정 또는 긍정과 같은 이분법적 가치기준의 정지를 뜻한다. 서양의 형이상학 체계에서는 진공 즉 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형이상학의 명제였으나 E. Torricelli가 진공을 하나의 실험으로 증명함으로써 없음(-)과 있음(+), 이 만나는 곳을 인정하게 되었다¹³⁾.

사물이 있다가 없어지면 영으로 돌아가 '빈 곳에 있게' 된다는 禪불교사상은 절대적 가치나 이분법적 대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삶의 '있음'과 '없음'을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하나로 본다. Schaub가 불교의 근본사상이 1968년 이전에 발견된 M. Foucault의 저술에 나타나 있음을 지적한 바와 같이, 해체주의의 해체된 중심과 불교의 빈(空)중심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J. Derrida와 Foucault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

Ihab Hassa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으로 불확정성, 단편성, 탈정전화, 주체의 상실과 깊이의 상실, 재현 불가능성과 아이러니, 혼합성, 축제화, 행위와 참여, 구축성, 내재성 등을 들고 있다. 이는 禪불교의 4가지 교리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교외별전(敎外別典)은 탈 정전화를, 둘째 불립문자(不立文字)는 재현 불가능성을, 셋째, 직지인심(直智人心)은 직관의 중시, 마지막으로 견성성불(見性成佛)은 자신의 행위를 통한 깨달음 즉, 행위와 참여와 공통점이 있다. 또한 불확정성, 주체의 상실, 아이러니 역시 禪불교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⁵⁾.

<표 2> 禪미학의 美的 범주화

선미학의 美的 범주	선불교 사상	久松眞一	Harold Koda
불이미 (不二美)	不二사상, 内外合一사상 : 불확정성과 불투명성	불투명	불규칙, 비대칭
빈곤미 (貧困美)	物慾의 초월, 해방 : 와비미학	불균제, 고고, 간소	
순수미 (純粹美)	불립문자, 교외별전 : 모든 형식의 거부, 직관	자연, 탈속	
공허미 (空虛美)	삼라만상의 본질 : 사비미학		불완전
유현미 (幽玄美)	육망의 극소화	유현, 정적	

객관과 이성중시라는 서구사상의 의문제기가 직관과 비이성적인 것을 중시하는 禪사상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어느 정도 해답을 찾고 있다는 차원에서 禪사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禪미학의 美的 범주화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禪미학의 중심에는 절대무를 형상화시키기 위한 빈곤중시, 순수성, 무상감 등이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禪불교의 기본사상과 히사마쓰 신이치의 禪예술의 7가지 기본 성격, 그리고 Harold Koda가 언급한 일본미학의 기본적 특성 3가지를 바탕으로 禪미학의 미적 범주를 크게 불이미(不二美), 빈곤미(貧困美), 순수미(純粹美), 유현미(幽玄美), 공허미(空虛美)로 분류하였다.

III.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禪美學의 경향

1. 현대 일본복식조형의 경향

1980년대 일본 복식은 서구 중심의 복식전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하여 혁명을 일으키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고 점차 세계 패션중심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일부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인 Rey Kawakubo, Issey Miyake 등은 서구와 전혀 다른 재단과 복식구조를 통해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저항을 표면화하면서 80년대 초반을 '일본패션의 충격시대'로 주도하였다.

이들의 복식조형을 형태면에서 고찰하면, 우선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의복과 신체의 적합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의복이 신체에 맞는 형태여야 하며 '입는다'라는, 최소한의 기능성과 실용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신체의 형태를 재해석한다. 특히 착장을 통해서 의복의 실루엣이 완성되는 비구조적, 비구축적 실루엣은 착장자의 성격과 자유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배기, 두르기, 걸치기 등의 요소는 Kawakubo Miyake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색채면에서는 검은색과 자연색을 중심으로 은둔, 절제, 禪적인 어두움과 그림자를 표현하며 소재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손으로 끈 끈을 섞어 짠 벨벳, 면과 모의 교직물을 이용하거나 소재자체의 아름다움을 조형으로 형상화시킨다. 에도시대 이후 오물 구멍

이 속에 처박아 두었던 것같은 불결함을 미학으로 제시하며, 기존모드의 시각으로서의 부정적인 모든 측면 즉, 구김과 얼룩, 김기, 울퉁기 등을 들추어내는 작업을 통해 부정적인 신분지위의 상징성을 표출시키는 모든 행위는 '흐름'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禪의 변덕스러움'과 흙, 화장압, 거품, 똥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禪의 그림자와 상통하는 것이다¹⁶⁾.

일본 스타일의 극단적인 변형은 80년대 중반 이후의 long & bulky 스타일의 유행, 일본의 경제적 지위 상승, 핑크 스타일의 하이패션에의 유입과 오리엔탈풍, 이국주의 및 에콜로지의 유행과 맞물려 새로운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의 일본의 푸어룩이 1990년대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은 9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으로 복식에서 경제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화려함을 피하는 세계적 경향과 상통한다. 이처럼 황폐와 빈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의복은,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심사숙고없이 부와 빈곤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단지 세기말적 현상에 그친 피상적인 모방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으나, 미적 범주의 차원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주변적인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주를 미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시각의 전환으로 미적 균형을 통한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禪美學의 경향

80년대 이후 영향력을 지니기 시작한 일본복식은 서구와 다른 독자적인 미의식의 제시로 서구의 모드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禪미학과 연관시켜 고찰함으로써 조형의 외적형태와 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앞서 분류한 禪미학적 범주에 조형적 특성을 적용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불이미(不二美) — 불확정성

禪의 목적인 깨달음은 불이의 세계를 깨달아 무아지경에 이룸으로써 가능해진다. 불이의 경지는 모든 대립이 끊어진 상태 곧 내외합일(內外合一)의 경지로서 사물이 전체성에 입각하여 존재함을 간파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세계를 남성과 여성, 부와 빈곤, 미와 추, 선과 악 등으로 나누는 서구의 전통사상과는 달리 禪사상은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空空'인, 초월적 본성이므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불

이미는 세계가 하나이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하나라는 불확정성 혹은 불투명성을 내포한다. 복식에 있어서는 크게 性의 불확정성과 형태의 불확정성으로 나타난다.

(1) 性의 불확정적 표현

서양에 있어서 의복은 중세이래 性을 인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각각의 성차를 강조한 이상적인 미개념을 설정하여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사회가 전개되면서 이와 같은 억압된 성적 표현은 진정한 인간미를 은폐시키는 불구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서양사상 속에 엄격히 구별되어 온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경계가 와해되고 복식에서 성적 불일치 현상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禪불교의 절대무 사상인 영(0)의 철학은 이미성의 구분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본 전제 즉, 이분법적 차이자체를 정지시키고 초월하므로 兩性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Kawakubo Miyake의 복식에는 양성적·중성적, 심지어는 무성적(無性的) 이미지가 제시된다. 이들이 보여주는 성적 이미지를 말살하는 자유는 모든 '범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이상시 하는 禪사상의 핵심이다.

'95 S/S 콜렉션에서 Comme des Garçon은 남성적인 재킷과 팬츠에 수복화가 그려진 여성적인 블라우스를 조화시킨 양성적 디자인을 제시하면서, 의복이 性을



[그림 3] Rei Kawakubo의 '95 S/S 디자인 「Fashion news」, vol. 24. p.30



[그림 4] Rei Kawakubo의 '95 S/S 디자인 「Fashion news」, vol. 25. p.14

초월해 존재한다는 성의 해체를 제시하였다(그림 3). [그림4] 역시 Kawakubo의 작품으로서 성적 이미지의 혼돈이 엿보이는 의복이다. 안감과 걸감을 도치시킨 레이어드 스커트,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비치는 소재와 테일러드 재킷을 함께 매치시켜 성적 이미지를 절충시키는 한편 여성과 남성, 내부와 외부, 드레시와 포멀의 양극적인 소재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

지나치게 성에 집착하는 서구의 시각에서 볼 때 추의미를 추구하는 일본복식에는 性情의 불확정성 즉, 禪미학의 不二美의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형태의 불확정적 표현

80년대 이후의 일본복식은 서구의 구조적 실루엣과 다른 비구조적 실루엣으로 인체의 자유로운 활동에 역점을 둔다. 의복형 자체를 부정하여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라인이 만들어지도록 비결정적인 여밈과 험라인을 만들거나 여러 다양한 종류와 길이의 옷을 걸쳐 입는 레이어링을 미학적으로 발전시켜 단정하게 차려 입는 전형적인 복식이나 착용방법을 무시하고 어떤 틀에도 구애받지 않는 새롭고 신선한 감각의 코디네이션으로 개성있는 감각을 표현한다.

수직, 수평적 구성선의 거부, 비대칭 원리 등 균형과 대칭의 속박에서 벗어나 형태에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

를 주는 禪미학의 부정형 미는 불확정성 혹은 비결정성이라는 포스트모던적 경향과 일치한다.

Kawakubo의 무형태의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평면재단과 입체재단의 요소를 적당히 배렬하여 인체의 활동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Miyake의 의상 역시 창작자의 신체적 움직임에 따라 자율적인 실루엣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입는 이의 사고와 성격을 반영하는 불확정성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Issey Miyake의 무형태 의상
「Issey Miyake」, 1988, p. 28

2) 빈곤미(貧困美) — 불균제

불교에서 수행인은 물욕(物慾)에 초월해야 한다는 불타의 정신자세에서 착상되어 법의의 재료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그리하여 쥐가 씹은 옷, 소가 씹은 옷, 시체가 입은 옷, 월수의 옷, 바람에 날려 찢어진 옷, 불에 탄 옷, 신묘(神廟)에 버려진 옷 등을 주워다가 삼의(三衣)를 만들어 입었다¹⁸⁾. 일본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불교본래의 '빈곤중시' 사상과 다도의 와비사비의 영향을 받아, 빈곤과 간소함의 미학을 표출시킨다.

빈곤과 황폐의 신비를 복식에 표현하는 의상은 주로 소재의 불균제를 형상화 시킨다. 울이 투박하고 표면이 거친 직물을 이용하거나, 해진 느낌이 나도록 색을 여러게 해서, 오래 입은 것 같은 효과를 주는 페이딩(fading), 직물의 씨실과 날실을 적당히 풀어 남아 보

이게 하는 프링징(fringing) 효과를 이용한다. 또한 찢고 구멍내기, 집기, 구김, 탈색 등도 모두 빈곤한 이미지를 제시한다. 오래 입어 친숙하고 고풍스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 탈색과, 부분적으로 기존의 천보다 어둡고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염색은 의도적으로 얼룩과 오염의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청결함'의 미학에 위배되는 '불결함'의 미학을 제시한다.

[그림 6]은 1983년 Kawakubo가 발표한 작품으로서 전형적인 푸어룩이다. 투박한 직물을 조각조각 이어놓은 듯 균일하지 않은 헨라인, 찢겨지고 구멍난 이 드레스는 마치 선승의 수도복을 연상시키는 한편, 선승의 소매자락과 찢어진 구멍사이로 불어오는 찬 바람과 고독을 미로 승화시키는 와비와 미가 표출된 것이다. '94 A/W콜렉션에서 발표한 Kawakubo의 아미룩(Army look)은 비바람에 쏘인 듯이 몸에 달라붙어 있고 찢어진 소매, 낡고 오그라든 군용담요를 연상시키는 직물, 풀려지고 찢어져 여기저기 기운 듯한 자켓에서 고정관념을 깬 황폐함, 빈곤, 극한적 상황의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새로운 미학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7).

Miyake는 주로 투박하고 거친 질감과 울퉁기울퉁기 통해 빈곤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그림 8), Kawakubo는 소재와 구성 모두를 통해 빈곤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6] Rei Kawakubo의 poor look
「Vogue」, 1983, 4



[그림 7] Rei Kawakubo의 poor look '94 S/S, 「Collezioni Donna」



[그림 8] Issey Miyake의 poor look 「Issey Miyake」, 1988

3) 순수미 — 무형식성

禪은 모든 형식적 질차를 거부한다. 禪은 일반 불교의 전통적 예식인 분향, 예배, 염불과 같은 일체의 사상적인 것을 버리고 직관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진리에

이르게 된다¹⁹⁾.

서양의 순수미가 기본적인 형상을 고집하는 것에 비해 동양의 순수미는, 기본적인 형상조차 거부하는 '空'과 '無'의 마음을 통해, 고정관념 없는 실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존재 그 자체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미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형식의 완전성은 사람들의 관심을 형식으로 향하게 하기 쉽고 내부의 진실 그 자체로 향하게 하기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형식의 불완전이 오히려 정신을 한층 더 완전한 것으로 표현해 준다는 禪사상은²⁰⁾, 일견 반항과 저항으로 보이기도 한다.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획득하는 禪에서의 부정은 외계의 존재를 부정(不定)의 형식 혹은 무형식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禪미학의 순수미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에서 무질서와 탈구성, 무형식으로 표출된다.

서구 패션의 전통적 시각에서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의복의 구조와 전체의모를 다시 생각하는²¹⁾ Kawakubo와 Miyake는 기존의 상식적 조형대신 실용성을 초월하며 의복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여 분석한다. 즉, '입기 위한 의복'이라는 의복의 목적론과 의복 각 부위의 본질적 기능성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험한다. 형식의 초월은 탈구성, 은폐와 노출의 반복, 위치의 전위, 디테일의 변용 등 추의 무형식성과 상통한다.

[그림 9]는 Kawakubo의 작품으로 의복은 기능성에 대한 순수한 접근, 형식의 불완전성을 통해 순수미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10]은 Miyake의 작품으로서 의복의 형태를 원으로 환원시켜 '0의 철학' 즉, '無'를 가시화시킨 순수미가 표출된 디자인이다.

4) 공허미(空虛美) — 불완전성

공허미는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우주 속에서 순간의 삶이 지닌 신비와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획득되는 미이다. 즉, 삼라만상의 본질과 인생의 무상함을 터득함으로써 순간은 덧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공허미는, 눈앞의 불완전이 아니라 한 번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안으로부터 자기의 완결성을 깨뜨리고 다시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즉, 완성의 부정으로서의 미완성 혹은 불완전의 美이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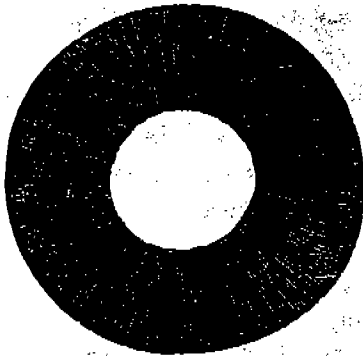
부식에 있어서 공허미는 불완전의 추구로 나타난다.



[그림 9] Rei Kawakubo의 디자인 '89 S/S 「Collections」



[그림 11] Rei Kawakubo의 디자인 '92 S/S 「Collections」 Vol. 11.



[그림 10] Issey Miyake의 디자인 「Issey Miyake」,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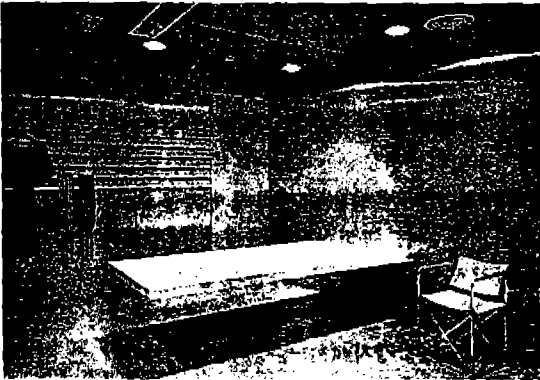
[그림 12] Rei Kawakubo의 작품 '92~93 A/W, 「Collections」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한 복식은 구성적인 면에서 완전함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는 도중에서 방치한 듯한 미완성을 형상화시키기 위해 이미 완성된 의복에서 다시 출발하여 본래의 모습을 파괴한다. 솔기를 봉제에 의해 마무리 하지 않고 핀으로 영성하게 고정시키거나 헴라인을 핑킹가위로 자르고 다아트, 헴라인 등의 구성선을 밖으로 드러내고 안감과 걸감을 도치시키는 등, 기존에 은폐되었던 의복의 구조를 분석적으로 노출하고 폭로함으로써 의복의 내부와 외부를 해체시키는 작업에 몰두한다(그림 11~12).

이와 같은 미완성과 완성의 양면가치는 '만든다'는 긍정적인 가치와 '파괴한다'는 부정적 가치 사이의 불명료함을 야기시키며, 복식에 불완전함과 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궁핍과 약탈된 듯한 파괴적 제언, 황폐와 부패의 신비, 불결한 형태에 대한 분석적 경향을 반영하는

한편 기술적인 완벽성과 기능적 순수성에 대한 가설에 대해 일종의 해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禪원리는 복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Kawakubo와 Miyake는 상품기획과 전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념을 표출시킨다. 록본기에 있는 Kawakubo의 'Robe de Chambre' 상점은 상품을 진열해야 할 판과 테이블이 비어있는 채로 있다. 상품과 전화, 심지어 점원조차도 반투명한 패넌뒤에 은폐되어있는 등 상점이 아닌 상점으로 보여지길 원한다. Miyake의 상점 역시 비어있음으로 인한 불완전, 미완성의 공허미를 나타내주며(그림 13), 禪미학의 고독과 냉기, 미완성에 의한 무상함을 예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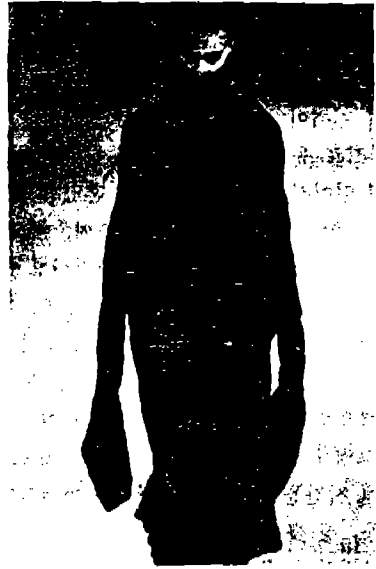


[그림 13] Issey Miyake의 shop내부
「Issey Miyake」, 1995

5) 유현미(幽玄美) - 무장식/무색상

禪미학에 있어서 유현미란, 히사마찌 신이지가 禪예술의 7가지 성격 중 하나로 언급한 특성으로서 깊숙한 것,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정적인 것은 아취와 표현의식의 은폐를 뜻한다. 표현자가 자기의 표현의욕을 교묘하게 은폐하면서도 표현효과를 최대로 달성하려는 전략적 배려인 유현미는²³⁾ 절제의 미학을 제시하며 복식에 있어서 무장식과 무색상으로 표출된다.

[그림 14, 15]는 표현자뿐 아니라 착용자가 개인적 욕망을 감추고 절제하는 禪미학의 유현미가 반영된 작품들이다. 신체가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감싸고 은폐함으로써 세속적인 모든 번잡과 고뇌로부터 탈출하고 세속적인 감각을 거부한다는 유현미는, 단지 정적이며 소극적인 표현의 형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은 정적인 아취와 풍미를 전달한다.



[그림 14] Rei Kawakubo의 작품 '92~93 A/W,
「Collezioni」, p. 29



[그림 15] Issey Miyake의 디자인
「Issey Miyake」, 1995

공예뿐만 아니라 직물모드에서도 자연색이 우선 기조를 이루고 색수를 극히 제한한다. 이러한 색채의 취향 즉, '색채의 절제' 역시 와비의 미의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禪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달한 수묵화 속에서 표출되는 미이기도 하다. 다양한 색채의 그림보다 먹만으로 그린 단순화한 수묵화 속에 禪의 진리가 한층 잘 표현된다고 생각한 것 역시 수묵화가 갖는 형

식의 불완전성과 관계가 있다. 수묵화 속에 나타난 墨의 색 즉, 검정은 절대무(絶對無)와 간소, 극한적 절제, 공허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일본인들의 정서 즉, 사무라이가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는 정신을 상징하는 색이다. 야시로 유키오(矢代幸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미술에 있어서 차별한 '회색조의 혼입' 즉, '무색상'의 경향은 禪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에도시대 시민 풍의 이끼호상의 배색문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에도시대 후반기에 서민들은 차색, 쥐색, 감색, 남색 계통의 자연색 즉, 어둡고 음침하고 흙냄새가 나는 가라앉은 느낌의 색을 많이 애용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벌레와 뱀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 줄 것이라 여겨 의복에 인디고염료에서 추출한 어두운 청색으로 염색하던 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검정색에 가까워졌다²⁶⁾. 애도와 죽음, 상(喪)을 상징하는 검정색이 지배적인 일본 패션에 장례식 룩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검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울하거나 불길한 혹은 세기말적 접근으로 보이는 것이나 일본 디자이너들은 검정색의 황량함, 체념적 요소, 절망을 통해 깊은 맛을 표출시킴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복식 특히, 하위문화적 요소와 결합된 파괴적, 정치적 메시지와 다른 함축이다. 1980년대 일본 패션 디자이너들의 무색상을 기조로 한 의복은 파리패션계에 부각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앞으로도 우울함과 세련됨, 가능성과 절망감 등 양면성을 갖는 색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는 동양에 대해서 학문적, 사회문화적으로 개방된 자세를 갖게 되었고 동양의 정신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동양권에 존재하는 정신적 본질과 내적가치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서양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의의 제기와 대안 모색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과 절대적 타자였던 동양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복식에서도 나타나, 기존의 서구 중심에서 탈피한 동양 디자이너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으며 합리화를 바탕으로 한 서양과는 차별화된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Rei Kawakubo, Issey Miyake 등

의 일본 디자이너들은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패션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80년대 이후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특성을 일본 문화의 큰 정신적 지주인 禪미학과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禪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종파로서 깨달음을 위한 무신론적 종교이자 철학이다. 모든 범주와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외적인 형식을 거부하고 순수한 실재에 복귀하는 것이 禪의 본질이며, 이런 특성은 20세기 이후 서양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대두된 포스트모더니즘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역사적으로 일본문화는 크게 '꾸밈' 문화와 '반꾸밈'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반꾸밈'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 禪사상이다. 특히 중세이후 다도문화와 연관된 와비사비의 미학은 절제와 간소, 무상함을 통해 美를 획득하는 독자적인 일본만의 '無'문화를 형성하였다.

와비사비라는 일본 禪미학의 범주를 크게 불이미, 빈곤미, 순수미, 공허미, 유현미로 나누고 이를 복식과 연관시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이미(不二美)는 모든 이분법이 해체된 내외합일(內外合一)의 경지에서 발생하는 미이다. 모든 현상세계가 궁극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가치를 수직적으로 위계화할 수 없는 '空'이며, 초월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부와 빈곤, 미와 추, 선과 악 등 대립이 정지한다는 禪사상의 양면가치는 복식에 있어서 불확정성 혹은 불투명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성적 차별의 가치화가 정지된 양성성, 중성성 혹은 무성성 등 제3의 성을 제시함으로써 성적 단서를 소멸시키고 관능성을 거부하여 性情을 모호하게 한다.

복식형태에 있어서는 의복형 자체를 부정하고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재창조하는 비결정적이며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통해 착용자의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며 禪미학의 불확정성을 내포한다.

2. 빈곤미(貧困美)는 불교의 검약정신과 다도의 와비사비미학이 융합되어 부와 장식보다는 빈곤과 황폐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美이다. 복식에 있어서 빈곤과 황폐함은 소재의 불균제 즉, 투박하고 거친 직물이나 수직, 페이딩(fading)과 프링징(fringing), 찢고 구멍내기, 깎기, 구김, 탈색과 염색 등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기존의 신분지위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압호를 무시하고 아름다움을 재 정의함으로써 추를 미의 영역으로 수용하며 현실에 대한 진실된 인식을 빈곤미로 승화시킨 것이다.

3. 순수미(純粹美)는 모든 형식적 절차를 거부함으로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美이다. 외형적 물상(物象)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심상을 표현하는 해탈인이 지향하는 순수미는 인습에의 저항, 근원에 대한 의문과 직관을 통해 창출되는데, 이는 동양의 禪의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순수미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에서 무질서와 탈구성, 무형식으로 표출된다. 장식적 조형과 실용성을 초월한 의복의 구조와, 의복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순수한 접근이 바로 禪美學의 경향으로 보여진다.

4. 공허미(空虛美)는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우주 속에서 삼라만상의 본질과 인생의 무상함을 터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상함과 허무감을 숭상하는 美이다. 복식에서는 완성의 부정으로서 미완성, 불완전의 추구로 나타난다. 특히 미완성을 형상화시키기 위해 이미 완성된 것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공허미는, 구조의 폭로와 불완전한 구성으로 완성과 미완성의 양면가치를 발생시키며 완전함에 대한 해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5. 유현미(幽玄美)는 깊숙하고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정적 이취 혹은 표현자가 자기의 표현의욕을 은폐하는 절제미로서 복식에서는 무장식과 무색상으로 표출된다. 이는 다도의 와비짜에서 보여지는 간결과 응축의 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장식과 색상의 절제를 통해 '절대무(絕對無)'를 형상화한다.

참 고 문 헌

- 1) 柳田聖山, 禪과 일본문화, 한보광 역, 서울: 불광출판부, 1996, p. 34.
- 2) 권기호, 禪과 현대 미술, 열화당 미술문고 65, 1990, p. 1.
- 3) Suzuki, Disetz, T., *Introduction to Zen Buddhism*, London: Rider, 1949, pp. 9-10.
- 4) 쓰지 노부오,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이원혜 역, 서울: 시공사, 1996, pp. 42-68.
- 5) 앞의 글, p. 75.
- 6) 백기수, 일본인의 미의식, 서울: 교학연구사, 1993, pp. 156-157.
- 7) 쓰지 노부오, 앞의 글, p. 83.
- 8) Suzuki, Disetz T., *Zen and Japanese cultu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p. 284.
- 9) Steele, Valerie, *Women of Fashion*, New York: Rizzoli, 1991, p. 186.
- 10) 柳田聖山, 앞의 글, p. 73.
- 11) 앞의 글, pp. 278-280.
- 12) 김홍근, 옥타비오 빠스, 외국문학, 1991, 1, p. 95.
- 13) 임영방, 포스트모더니즘을 위한 기본전제, 예술문화연구, 서울대출판, 1993, p. 40.
- 14) Uta Liebmman Schaub, "Foucault's Oriental Subtext", *PMLA*, Vol. 104, No. 3, 1989, 3, p. 309.
- 15) 심상옥, J.D. Salinger 소설의 禪 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p. 32-33.
- 16) Taylor, Lou and Wilson, Elizabeth, *Through the Looking glass*, London: BBC Books p. 200.
- 17) Martin, Richard & Koda, Harold, *Infra Apparel*,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 97.
- 18) 임영자, 한국의 불교복식에 관한 연구(1) — 잔존유물을 중심으로 —, 고고미술, 한국미술사학회, 1980, p. 120.
- 19) 조병원, 禪思想과 회화,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 21.
- 20) 무토오 마코도, 일본미술사, 양덕회 역,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 136.
- 21) Steele, Valerie, 앞의 글, p. 187.
- 22) 柳田聖山, 앞의 글, p. 74.
- 23) 백기수, 앞의 글, p. 266.
- 24) 조병원, 앞의 글, p. 35.
- 25) 쓰지 노부오, 앞의 글, p. 27.
- 26) Koren, Leonard, *New Fashion in Japan*, Tokyo: Kodansha, 1984, p. 45.